

오피니언1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단법인 바다살리기 국민운동 충남본부 **김종록** 본부장

21세기를 맞이한 현재, 환경권(環境權)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보다 나은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환경운동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 되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 대한 관심은 급격한 산업화, 공업화 과정을 걸어온 우리로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의 힘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한 시적으로만 제기되고 사장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다. 환경문제는 지속적이고, 전사회적으로 풀어가야 할 생존의 문제이다.

이런 인식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 확대되면서 정부와는 별개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4~5백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시민환경단체들의 활동과 활약상은 이러한 폭증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바다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민간운동이 필요한시기입니다.**

시민환경운동의 방향은 각각 자기의 고유영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면, 21세기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새로운 활동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바다환경”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바다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민간 환경단체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바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꾸준한 준비와 노력의 결실로 순수 민간 환경단체인 본 사단법인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를 발족, 창립 시키게 되었다.

**맑고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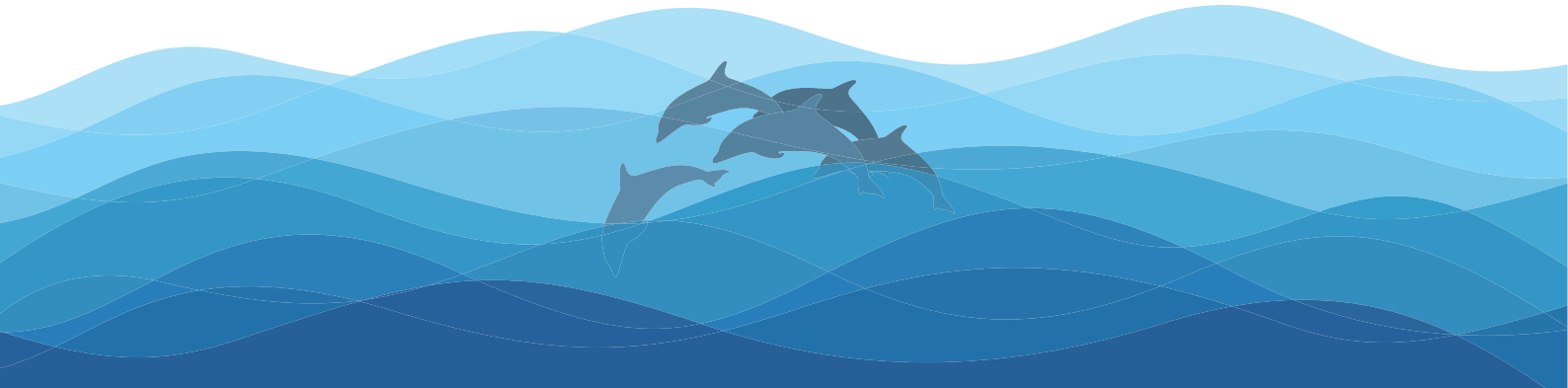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육지면적의 약 3.5배에 달하는 넓은 해역과 1만 2천 7백km의 긴 해안선, 3천 2백여 개의 섬들과 어우러진 해수욕장, 해상공원 등 관광자원, 각종 어패류의 수산자원, 해저 광물자원 등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지구표면의 71%를 덮고 있는 바닷물은 지구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바다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극심하지 않도록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여 생물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적절히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바다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모든 오염 물질들을 받아들이며 희석, 확산, 산화, 분해 하는 등 자정작용을 통하여 지구 생태계의 재순환을 돕는 역할도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다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맑고 푸른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해 해양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바다는 단순한 항로나 어로 작업의 장이 아닌 것이다. 국토의 일부이자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 쉬며 서식하는 생명의 근원지이고 각종 부족자원이 가득한 매우 값진 보물 창고이다. 이토록 값진 보물자원이 극심한 오염으로 병들어 썩어간다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바다살리기 충남 운동본부는 죽어가는 바다를 살리기 위해 바다 오염의 주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바다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각 지역 어촌계 주민들 대상으로 해양 환경의 파수꾼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계몽해 나아갈 것이다. 더불어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의 정책적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2

사회적협동조합은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자산이다.

사회적협동조합 다울 김병우 이사장

나의 소비가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는 기본 경제이론이 무너지고 있다. 세상의 모든 돈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이 있는 것일까? 소득과 부의 양극화로 점점 새의 날개는 커지고 장자에서 나오는 대봉이 되어 저 높은 하늘에서 비웃는다. 중산층은 이제 빈민화 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 시대로 인해 우리 주변의 50세가 넘는 퇴직자의 실업은 장기화되고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일 수 있다.

최근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구성원들의 협동을 통한 자조, 민주주의, 평등, 자기책임, 협동조합 간의 협동과 연대, 지역개발 및 발전 등을 강조해 왔다. 윤리적 가치로서는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추구해 왔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자산 형성에 기여해 왔으며,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은 사회의 혁신 동력인 동시에 협동경제사회의 빛과 소금일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경제, 사회적으로 변화가 심하고 계층 간, 집단 간에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사회통합의 기제로서 사회적 자산의 중추인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신뢰, 네트워크, 자율적인 규범과 제도 등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의 무형자산 즉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경제 선진국의 사례처럼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추어지면 정보 부족과 정보제공의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기회주의적 행동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 등을 완화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사회적으로도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게다가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의 소속감을 증진시켜 복리를 향상시킨다.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통합도 촉진시킨다.

“다울 사회적협동조합은 한국형 협동조합의 하나이고 싶다.”

다울사회적협동조합은 공동의 성장을 원하는 다수의 기업(41개 조합원 기업)과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업종간 교류를 활발히 하고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 사슬의 시너지를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 조직의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복합체'라 자칭하는데, 어쩌면 이러한 방식이 다이나믹하고 유연한 경제산업체로서의 협동조합을 실현하는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다울사회적협동조합은 2013년 10개의 환경업종 기업이 모여 설립되었다. 열악한 작업환경에 속하는 위생환경관리업은 신체사고와 재해도 많고, 감염병과 약품으로 인한 위험 노출 등 안전대책이 시급한 업종이기도 하다. 또한 저학력 직종군이고 고령자가 다수인 취약계층의 직업군이다. 조합 설립 초기, 교육표준이 없는 현장에서 환경업종 직무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교육사업에 방점을 두었으며 관련 사업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직업능력훈련시설,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소상공인경영교육기관 등을 통해 노력해왔다. 꼭 필요했지만 업종 특성상 어렵고도 힘든 길이었다.

2017년 국회로부터 출발한 공공기관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예는 청소 근로자의 경우 노동의 가치와 자긍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당장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겠지만, 2018년 여러 기관으로 확대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다만 실질적인 처우 개선 노력과 고령자가 많은 직업 특성상 고용 안정 대책과 안전 및 기초직무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사업자연합체이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뭉친 특별한 사례이지만,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이중 참여로 정체성 혼란이 있었으며 지역내 조직 간의 불협화음도 있었다. 신뢰적 유대감을 쌓는 동안 사람간의 문제로 내부 오해와 정쟁도 있었다. 처음부터 쪽 뽀은 고속도로를 예상하진 않았지만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피턴(P-turn)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길이 막혀서 유턴(U-turn)을 반복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역시 협동조합은 어려웠다.

어쨌든 5년이 지나 조금의 안정기에 접어든 지금, 이러한 초창기의 시행착오는 미로를 헤맨 것이 아니었으며 공동의 경험치를 쌓는 배움의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멀었지만 고비와 역경의 과정을 겪은 후의 성공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올지 설레인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갈래길에서 큰 대로를 따라 가면 편하겠지만 때론 풀 냄새, 장작 타는 냄새, 사람 냄새 나는 동네길과 사잇길도 좋을 때가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만으로 혁신을 논할 수는 없다. 나와 다른 사람과 집단과 화이부동의 진정성을 공감할 때 협동조합은 가능하고 사회는 변화할 것이다. 그것의 확장된 형태가 협동공동체이며 사회적 경제의 지향점일 것이다. 2018년에는, 현장의 역동적인 경험과 공동체적 유대감의 훌륭한 엔진을 좌우에 장착하고 달리는 혁신형 버스, 다울사회적협동조합복합체가 되고 싶다.

우리가 공동체를 지향하며 동거동락을 외치고 협동을 강조하며 살고 있지만 가끔은 결과 속이 다르게 살아왔음을 부끄러워한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자의적, 긍정적으로 떠들었고, 세상이 절망적일 때 희망을 보았다고 자위적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었다. 조합과 사무처는 사회적 연대와 조합원 간 유대감의 확장을 기대한다. 전문성을 갖추고 남을 이해하는 여유가 넘치는 자여야만 진정 배려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을 해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해주는 것이다.

구성원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공동체 또는 어떤 조합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공동체가 가진 모든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것과 사회적 자산인 협동조합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목표이자 비전일 수 있다.

우리가 보다 새로운 협동조합공동체로 거듭나고 진정 유의미한 인생을 살려면, 생각하는 방식을 협동조합의 숭고한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